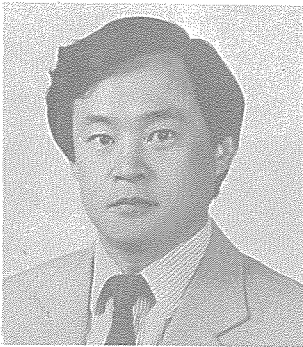


美, 日 구강·악안면외과학회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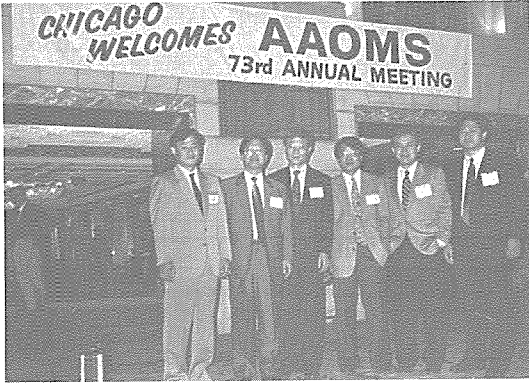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김 여 갑

제 73회(91년도)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학술대회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시카고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제 72회 학술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제 40회 종합학술대회의 특별연자로 오셨던 Robert V. Walker교수에게 헌정되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Virginia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의 Daniel M. Laskin교수에게 헌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9명이 참석하였다. 모든 회원에게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내용에 큰 흥미가 없었는지 모르나 서로를 알고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조금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번째 순서는 학술적인 어떤것보다도 "Where are we?"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강·악안면외과의 역사, 현 당면 문제, 전공의 수련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보다 전문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심포지움으로 시작되었다. 치의신보에 美·日 구강·악안면외과학회를 다녀와서의 큰 제목이 "새로운 것을 찾고 개발하는 노력 필요해"이었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자가 더욱 강조하고자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더욱 전문화하고 심

도있게"하는 일이다. Texas대학의 Bell교수가 자신의 구연 연제 발표중에 『Give me the surgeon who does the correct operation rather than the man who skillfully perform the wrong one』이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날림으로 빠르게 하기 보다는 정확한 치료를 강조한 바 있었다.

이어서 미국의의 나라의 전공의 교육과정에 대한 토론시간으로 서론, 영국의 현 제도 및 전망, 유럽의 현 제도, 덴마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외국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있었다. 이후 이를 위한 공개토론이 계속되었다. Walker교수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공의들이 연차별로 하여야 할 일들을 규정하는 교육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시간에 다른 방에서는 구강·악안면



○미국 구강·악안면학회에 참석한 우리나라의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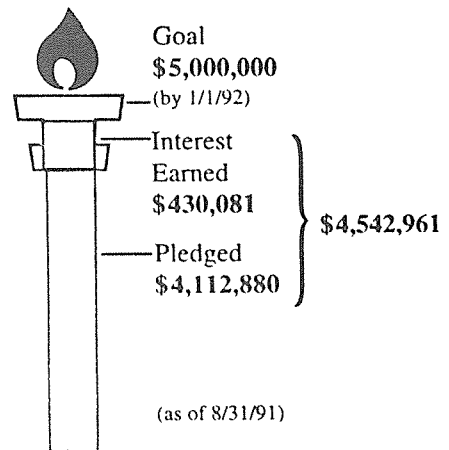
○제36회 일본구강외과학회 총회 간친회석상에서 일본측 임원과 함께

외과의 최신지견에 대한 연제가 14개 발표되었다. 이 중에는 두개 악안면외과술에서 부터 매식된 금속 이물질의 위치확인까지 다양하였다. 악교정술과 아울러 심미의 과술도 초점이 주어져 鼻成形術에 관한 심포지움과 SRC(surgical round clinic)가 여러개 개설되었다.

심포지움은 7개로 이외에도 치아 매식학,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의 한계, 외상학, AIDS, 수포성 케양성 병소의 CPC, 전신마취시의 문제점, 악관절의 처치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SRC에는 위에서 말한 주제외에도 컴퓨터 분석, 신경손상의 진단및 치료, 소아 마취, 눈, 코, 목부위의 심미적 평가, 악교정 근육의 적응에서 토요일 저녁 총상에 이르기까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것보다 조금 확장된 형태로 삼차신경 손상및 회복, 악관절 개방술과 악관절경 외과술의 비교, 구강·악안면외과영역의 고압산소치료, 심히 위축된 하악의 외과적 회복, 토순 구개열의 외과적 치료, 및 "What dental school

didn't teach you about the business side of your practice?" 의 치과경영에 까지 46개의 minilecture가 개설되었다. 또한 학술적 주제에서 부터 "세계의 golf course"에 대하여 까지 38개의 eat & learn breakfast가 준비되었다. 구연은 악안면 재건, 안면의 병리및 외상의 치료, 신경의 재생및 감염, 마취, 창상치유및 심미 외과술, 악교정술, 구순 구개열 및 악관절장애에 관한 주제 별로 70개가 발표되었으며, 포스터도 필자의 안면골 골절통계를 비롯하여 56개가 게시되었다. 발표자는 3시간동안 토의를 위하여 자리를 지켜야하며 평가위원들에게 심사되어 우수 논문이 결정되었다.

학원 기금 확보를 위하여 92년 1월 1일까지 5백만 달러를 목표로 횡보를 상징하는 모금운동이 진행되어 91년 8월 31일까지 현재 약 4백 54만 2천 9백 61달러가 약속되어 있었으며 학회석상에서 5만 불을 기부한 Walter Lorenz에게 모두 기립박수를 했다. 이외에도 여러 명칭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 연구기금의 확보, 대국민 홍보 사업, 가능하다면 우수 논문의 해외 발표시 보조 등 돈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이를 위해서 아직 아무런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의 일련의 아쉬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본다.

연이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오오사카에서 제 36회 일본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열렸다. 일본에는 구강 암학회, 악변형학회 및 악관절학회등 관련학회로 연제가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각 주제에 따라 구연이 375연제로 증례보고에서 실험논문까지 다양하게 발표되었으며 이중 종합병원내 구강외과의 활성화를 위한 「개업구강외과의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이들만의 간담회가 개최되어 「구강외과 개원의의 현황」 「치과의료 종사자의 건강조사」 「초진환자의 임상 통계적 관찰」 「치과 치료시 감염 방지대책에 관한 앙케이트」 등 의사통계에 관한 것이 발표되었다. 우리의 연제도 15개가 발표되었다. 미국과 달리 구성이 단순하여 구연이외에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장등 4명이 20분씩 특강을 하였으며 역시 심미 외과술에 관심을 가지고 「토순 구개열의 성형수술」의 교육 강연과 「심장질환 및 고혈압 환자등과 같은 전신환자들의 연자는 20분간씩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다. 발표되는 내용

이 너무 다양하고 양이 많기 때문인지 또는 이비인후과 및 성형외과의 협조가 잘 되기 때문인지 영역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없었다. 우리의 경우 서로의 두꺼운 벽을 쌓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성형외과에서 여러 간행물에서 이야기 하듯이 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를 보조 정도로 제쳐놓고 25년이나 늦게 시작하면서도 최초인양 선전하면서 안하무인적인 그들에게 cephalogram등을 분석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문을 직접 써주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적든 크든, 어떤 댓가를 받겠지만 이는 바로 내살을 깎아먹는 일이 됨을 알아야 될 것이며 이들은 바로 오래지 않아 구강·악안면외과 영역 뿐아니라 교정치료 및 치주과영역의 치은성형술 등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학회로 돌아가서 영문으로는 Japanese Society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로 쓰면서도 日本口腔外科學會를 그대로 쓰면서 내용을 폭넓게, 깊이 있게 함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이 깊어진다. 형식보다 내용을 더욱 깊이 할수 있는 학회의 운영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이 크며 뛰어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앞장서는 것도 좋지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은 지도를 해주시며 젊은 사람들은 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여러 외

국 교수의 초청에 직, 간접으로 관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젊은 교수가 왔을 때는 이런 느낌을 별로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교수를 초청하였을 때 언제나 초청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다보니 우리나라의 치과계나 구강·악안면외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지도 모르고 개인에게만 고마와하며 모르긴해도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Walker교수를 초청하였을때는 가능하면 원로 교수님 및 학회의 원로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 하였으나 뜻한 만큼 되지 않아 섭섭하였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두 학회에서 느끼는 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어떻게 더욱 전문화시켜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관련학회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하는 점과 대부분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개업의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G.V.Black의 다음의 말을 인용하며 전문의의 길로 가는 우리의 맘은 단지 이것뿐이라고 전하고 싶다.

『The professional man has no right to be other than a continuous student.』